

위상미술 심화이론 기출문제 한국미술사 답안

1.

- ① 정색 ② 유향 ③ 황룡

2.

- 화장지법(프레스코)
- 표면에 석회를 바르고 회벽이 마르기전에 안료를 물에 녹여 그린다.
- 당시 시대의 의복이나 풍습, 생활상 등을 알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3.

조성된 벽화 무덤의 순서는 (다), (나), (가)이며, 공통으로 나타나는 천정 구조의 명칭은 모줄임 천정(말각조정식)이다. 모줄임 천정은 네 면을 평행고임과 삼각고임으로 모를 줄여오는 방식으로 쌓고 맨 위에 네모난 판석을 덮어 완성한다.

(다)의 주실의 동쪽과 북쪽에 있는 회랑쪽 벽에는 긴 행렬도가 표현되어 있다. 2백 50여명이 등장하는 대규모의 행렬도는 주인공의 권세와 영화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내세관은 죽어서도 현세의 영화를 계속해서 누리하고자 하는 계세사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4.

① 사의적 산수화

- ㉠ 작가의 주관대로 관념세계를 양식에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그린 산수화이다.
- ㉡ (가)는 중국의 북종화 기법을 사용하여 이상적인 도원의 세계를 표현했다.

② 사실적 산수화

- ㉠ 사물의 실체를 그대로 보고, 사실적으로 그리는 산수화이다.
- ㉡ (나)는 한국적 산천에 적합한 준법과 찰법으로 비에 젖은 인왕산을 표현했다.

5.

1. 안평대군의 찬시와 발문이외에 21명 석학들의 찬시가 쓰여 있기 때문이다.
2. 대각선 구도, 삼원법(평원, 고원, 심원), 해조묘법, 공필법, 침형세수, 운두준, 조광효과, 괘희파, 황권, 치형돌기, 수목담채

6.

- 금가루를 아교에 개어 만든 금물을 회화의 채색 재료로 사용하여 검정 비단에 니금(이금泥金) 기법으로 그렸다.
- 니금(이금) 기법고려시대에 감지에 금이나 은으로 그린 사경화에 사용되었다.
- 안견파, 근경의 언덕을 중앙부로 끌어당겨 놓은 점, 원경의 산들을 뭉게구름처럼 분산시키고 있는 점, 공간의 확산과 오행강을 동시에 적극 추구한 점 등에서 이전의 작품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7.

① 안건

②

- 거친 필묵법, 흑백대조, 부벽준으로 그림
- 근경에 인물위주로 중경을 삽입하고 원경을 생략하여 한쪽으로 치우쳐 그린 변각구도

8.

① 세한도 ② 만폭동도 ③ 김득신 ④ 책거리

⑤ 작가의 정신과 감정을 중시한 남종문인화, 감필, 갈필, 여백을 강조하여 간결하게 표현

⑥ 다시점, 역원근법 사용, 반복성, 동시성, 현세 구복적 상징성 표현

9.

㉠ 정선은 근경의 단발령 전체와 그 고갯마루에서 바라본 내금강까지의 전경이 한 눈에 보이도록 부감법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남종화 산수준법인 미점준으로 근경을 처리했고, 멀리 떨어져 구름 위로 솟은 금강산은 뾰족뾰족한 수직준법을 반복해 표현했다. ㉡ 변관식은 앞에서 올려다 보는 양시로 상선암과 중선암을 나란히 표현하고, 삼선암 아래 만상정 정자와 위의 중첩된 산의 모습은 부감시로, 멀리 보이는 금강산은 평시로 다시점이 사용되었다. 또한 짙은 적묵법을 통해 표현한 바위 선의 날카로움을 붓을 뉘인 선으로 긋고 그 선이 마르기 전 점을 찍는 파선법으로 부수어 표현했다.

(가)와 (나)에 등장하는 점경인물은 화면상에 생동감을 주고 분위기를 증가시킨다. 정선은 단발령 위에 금강산을 완상하는 인물을 배치하여 화면에 생동감을 주었고, 변관식은 만상정 정자를 향해 앞으로 나가는 갓쓰고 두루마기 입은 할아버지들을 통해 화면에 생동감을 주어 분위기를 증가시켰다.(이해를 위한 부연 설명)

10.

㉠ 미점준 ㉡ 수직준

11.

지두화법

12.

3-1) (가)는 종이에 수묵으로 제작한 것이다. 김정희는 붓에 있는 물기를 빼고 소량의 먹이나 농묵을 찍어서 굵듯이 붓을 눌러서 그리는 갈필법을 활용하여 거칠고 메마른 추운 겨울의 분위기를 맑고 청절하게 표현하였다. (나)는 캔버스에 유채물감으로 제작한 이다. 박수근은 유채물감을 8겹에서 12겹으로 계속해서 덧칠을 하여 화강암과 같은 거친 질감을 통해 전후 힘든 삶의 모습을 표현했다.

3-2) (가)는 ‘날씨가 추워진 뒤에나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을 빌려 유배지에 있는 김정희를 잊지 않고 찾아온 제자 이상적을 지조와 절개를 소나무와 잣나무로 표상한 그림이다. 반면 (나)는 6. 25이후 집을 잃고 길에 서있거나 시장바닥에 앉아 있

[위상미술]

을 수밖에 없던 힘든 현실을 이겨내고 살아온 어머니들의 삶과 오랜 세월을 견뎌낸 고목나무를 함께 배치하여 힘든 삶 가운데서도 삶의 희망과 의지의 표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13.

㉠은 형사에 치중한 윤두서가 신운이 떨어지고, 정선과 심사정은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그림이 배울 것이 못 된다고 비판하는 점에서 진경산수화풍의 쇠퇴를 가져온 경향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은 원인(元人)의 필법을 방사하도록 한 점은 당시 원말 사대가(원대 동거파)의 화풍을 칭나라 뿐만 아니라 조선말기 화단에서도 화첩을 보고 방작했던 것을 통해 남종문인화가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나) 작품이 황공망 화풍으로부터 받은 표현기법의 영향은 메마른 갈필법을 활용한 점과 근경의 언덕과 원경의 주봉에 사용된 피마준과 쌀알 모양의 미점준의 영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허련은 다소 거칠고 소박한 느낌을 자아내는 갈필법과 푸르스름한 담청을 쓴 설채법에서 황공망과 다른 독자성을 드러낸다.

13-2.

㉠ 노근목란(노근란) ㉡ 유민화가

14.

- ① 조선 중기
- ② 특징

- 화려한 채색을 곁들인 부귀체와 달리 매화가지와 새를 윤곽선이 없는 몰골법으로 묘사하였고, 먹의 농담을 조절하여 강약 변화를 준 아일체의 화조화이다.
- 야금을 소재로 하여 복잡한 현실을 벗어나 은거하고 싶은 선비의 마음을 간결한 구도로 표현한 수목사의화조화이다.

14-2.

㉠의 축화는 수직으로 걸도록 표배한 그림을 말한다. ㉡의 구름전채법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윤곽을 필선으로 먼저 정하고, 그 윤곽선 안을 색채로 메우는 회화기법이다. 반면, ㉢의 몰골법은 윤곽선 없이 바로 먹이나 채색만을 사용하여 붓을 눌러 넓게 퍼지도록 하여 사물의 형태를 묘사하는 기법이다. 마지막으로 ㉣에 들어갈 내용은 ‘부부금슬(금실)’로 기러기는 원앙처럼 자웅이 짝을 이루면 한쪽이 죽어도 다른 짝을 찾지 않고 중생토록 혼자 지낸다고 하여 다정한 부부 사이를 나타낸다.

15.

패랭이 꽃과 제비꽃의 꽃잎은 설채점염법(몰골법으로 채색)으로 농담을 조절하는 농담법, 요철법 등의 기법으로 그렸으며, 잎사귀는 구름전채법(윤곽선 안에 채색)으로 윤곽선은 약하게 채색은 짙게 하여 화려하고 장식적이다.

고양이 묘(猫)는 칠십 노인, 나비 접(蝶)은 팔십 노인을, 패랭이 꽃은 청춘을, 제비꽃은 만사여의

(萬事如意)를, 둘은 장수를 상징한다. 따라서 전체 그림을 합쳐 읽으면, 생신을 맞은 어르신께서는 부디 칠십 팔십 오래도록 청춘인 양 건강을 누리시고 또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소서하는 축원이 된다.

16.

1-1) 전신은 형상을 통해서 정신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신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외형묘사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숨어있는 내면적 인격, 학덕, 마음을 눈을 통해 표현해야 한다.

1-2)

- ① 사회 경제적 안정에 따른 문예 부흥기로 문학, 예술, 과학이 발달하였고, 현실 중심적이다.
- ② (가)는 정면을 응시하는 조용한 시선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했다면, (나)는 의상과 장신구로 치장하여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17.

(가)는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갯끈을 씻을 것이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라”한 초나라 굴원의 고사를 통해 혼란한 시기에 세파를 떠나 자연에 귀의나 속박 없는 은둔생활에 대한 동경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은일사상(은둔사상)을 반영한 고사인물화이다.

㉠ 절파화풍으로 근경에 인물을 왼쪽으로 치우치게 배치한 편파구도로, 중경을 삽입하고, 원경을 생략하였다. ㉡ 어물을 머리에 이고 채소를 든 여인과 대화하는 노인을 관찰하여 수목담채로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의습선은 굵기가 일정한 철선묘와 갈대가 꺾인 듯한 절로묘를 사용하여 섬세하고 정교하게 표현했다.

18.

㉠의 주제에 따라 (가)의 인물화 종류를 분류하면, ‘도석인물화’에 해당하며, 작품 속 인물은 수노인으로 장수를 상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수성을 의인화해서 그림을 그려 회갑 축하와 장수를 축원하는 축수용으로 많이 제작되었다.

(나)의 옷 주름 표현에 사용된 선묘법은 ‘정두서미묘’로 운필 방법은 시작되는 부분은 붓의 윗부분과 같게 하고, 끝으로 갈수록 선이 가늘어져 쥐의 꼬리와 같이 표현한다.

19.

① 장수와 신년(새해) ② 기쁜 소식 ③ 앞이 푸른 소나무를 통해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까치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다.

20.

(가)의 잉어는 중국 진나라 사람 왕상의 고사를 인용한 소재이며, (나)의 물고기는 한자로 ‘어(魚)’는 넉넉하다는 의미의 ‘여(餘)’자와 중국어 발음이 유(yú)로 같기 때문에 여유를 의미하는 소재이므로 사용되었다.

(나)의 물고기는 한 획에 농묵, 중묵, 담묵의 진한 정도가 모두 나타나는 삼묵법으로 그려졌다.

‘삼여(三餘)’ 는 밤, 겨울, 비오는 날이다. 하루의 나머지는 밤, 1년의 마지막인 겨울, 맑은 날의 나머진 흐리고 비오는 날의 세 여가만 있어도 학문을 하는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21.

① (가) 변관식 (나) 노수현 (다) 이상범 (라) 허백련

② 적묵법 : 칠한 먹이 마르면 더 짙은 먹으로 계속 덧칠하는 방법으로, 강렬하고 중후한 느낌을 주어 깊은 양감 표현을 하였다. 파선법 : 선 위에 점을 찍어 스스로 선을 파괴하는 파묵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금강산의 기개를 잘 표현했다.

22.

• 기여한 점

① 콜라주, 판화, 걸개그림 등 다양한 매체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② 현실참여나 사회비판적 경향의 미술 기능을 신장하였다.

• 한계점

① 미술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도구화 하였다.

② 전통을 모방, 답습하였고, 예술 작품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위상미술]